

불교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재가연대등 20개단체 동참... '불교NGO 지원법' 청원키로

불교바르세우기재가연대 좋은벗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등 20개 단체는 14일 재가연대 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불교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 불교 NGO 영역의 확대를 위한 공동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월 1회 정례회의, 인터넷(불교정보센터)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재가연대 산하 참여불교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모임은 불교 NGO들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불교 인력의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연계하는 역할을 맡아 NGO관련 정

보 유용, 국제참여불교 창구, 불교 사상에 입각한 사업 개발 등의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불교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올 초계종 결산총회에 시민사회단체지원법과 (가칭)사찰종무원법 등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재가연대를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 불교단체들의 동의를 얻은 후 종교 사회분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 법안들은 열악한 불교NGO의 활성화와 불교단체 종사자 및 사찰 중무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정승기 재가연대 시민사회국장은 "그동안 불교 NGO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못해 발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불교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불교NGO를 하나로 묶고 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각 단체실무자들은 ASEM(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2000 민간단체 포럼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13개 위원회로 구성된 민간단체 포럼은 오는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며, 현재 불교인권위원회(인권), 좋은벗들(인권·평화), JTS(빈곤과 개발), 민족화해협력추진위원회(평화), 불교환경교육원(환경) 등 불교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단체 포럼 종교분과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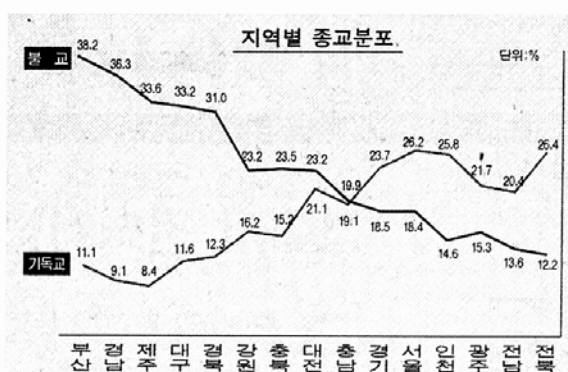
오후5시 기독교연합회관 609호에서 2차회의를 열고 공동의제, 회의 장소(봉은사) 등을 논의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동화사 승가대학 헌관식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상덕)는 3월13일 심검당에서 동화사 승가대학 헌관식을 거행한데 이어 15일 첫 강의를 시작했다. 동승가대학에는 올해 치문반 10명 사집반 5명등 모두15명의 학인이 등록했다.

동화사장주 해월스님은 "현장학습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시대에 맞는 실천수행자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호 기자



인구의 23.2%로 가장 많으며, 개신교가 19.7%를 차지한다.

지역적으로 불교 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38.2%)이고 개신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26.4%)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의 경우는 강북은 불교 신자가, 강남은 기독교 신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구 등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개신교 신자 비율이 30%대를 유지한 반면, 성동 등대문동구 등 강북은 21%대로 나온데 반해 불교는 강북 주민들의 신자 비율(21%)이 강남(16%)보다 높았다.

유교는 "종교인구의 편차가 한국종교의 특징이며, 이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한국종교문화에 분명히 드러나는 종교인들의 지나친 개인주의 성향이 종교간 갈등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는 있지만, 종교와 사회를 유리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東-불교 西-개신교 '강제'

한신대 유성민 교수 분석

한국인 50.7% "종교있다"

불교-개신교-가톨릭 順

유성민 교수는 "종교인구의 편차가 한국종교의 특징이며, 이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한국종교문화에 분명히 드러나는 종교인들의 지나친 개인주의 성향이 종교간 갈등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는 있지만, 종교와 사회를 유리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사 1166명 장기기증-화장유언 '서약'

포교사단 12일 출범

포교사 1166명이 교계 처음으로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을 단체 서약했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12일 조계사에서 출범과 함께 포교사 스스로가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를 하는 포교사단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생명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출범식에 참가한 포교사들이 대부분 참여한 장기기증에는 사후 각막기증에 212명, 뇌사 장기기증 228명, 사후신장기증 135명, 신장기증 16명, 골수기증 17명등 608명이 참여했다. 또 화장유언에도 558명이 동참했다.

포교사단은 집계된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서약서' 내역을 참가 대중들에게 발표하고 곧바로 생명나눔실천회(회장 법장스님)에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은 12일 출범식에서 포교사 1166명의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서를 생명나눔 실천회에 전달했다.

조계종 예산 282억 '통과'

총회, '조계종-대각회 합의문'도 인준

14일 개최한 146회 조계종 중앙총회는 회기 첫날 영축총림 재지정, 불기 2544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일반회계 일반회계157억6천91만3천원, 특별회계 125억4천8백50만원) 통과 등 11개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15, 16일은 중앙총무기관 중점감사로 휴회하고 17일 속개회 중앙총무기관 김포학사 특위 보고를 듣고 김포학사 부설 시공을 따지기 위해 중앙총무기관 전 이사장인 월주, 고신스님의 출석을 요청을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17일까지의 주요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축총림 재지정 △조계종-대각회 합의문 인준 △중국어학원 법인 정관 개정 촉구 결의(등록학원 정관 24조(임원의 선임방법)에 단서

조항 삽입, '조계종 재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정계사 주지 지명스님, 재원스님(경산포교당 주지, 비구니)를 선출 △초심호 계원인 도견스님(도피안사 주지) 선출 △중현·종법 제·개정특위 구성. 위원은 학단 상관 법안 정취 현용 광주 장주 대원 법성(이상 중회의원), 총무부장 원택, 기획실장 지원 △환경(사찰, 자연, 문화환경) 문제 대책위를 집행부에서 구성토록 촉구 결의 △삼화사 주위의 석회석 채취 발파 중단 촉구 결의, △불기 2544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

정성운 기자

성동경찰서 경범죄당 개원

성동경찰서 경범죄(실장 상덕스님)이 부처님을 봉안하고 경범죄당으로 거듭나 성동경찰서 불자들의 신생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범죄실장 상덕스님은 14일 성동경찰서 5층 경범죄실에서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이어 회의실에서 경범죄당 봉축법회를 거행했다. 기념축하공연, 다과회로 진행됐다. 봉축법회에서 상덕스님은 권영실 성동경찰서장에게 경승단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지연 기자

수덕사 주지에 법장스님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는 15일 임회의원 23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장스님(현 주지)을 주지로 재추대하고, 총무원에 임명을 공식화했다.

법장스님은 60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7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80년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82년 총무원 사회부장, 84년 총무원 재무부장, 92년 수덕사 주지,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경 기자



1면 '국토이용법'서 계속

폐지의 행위라도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사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법적행으로 부조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는 "전사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사이에 상충이 있을 경우 전통사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는 특별법인 전사법을 적용해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전사법 규정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연계시켜 두 법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 재무부의 김영주계장은 "전통사찰 경내지에 무분별하게 종교시설이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찰의 고유한 활동가치 막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정보화시대... 불교도

2000학년도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야간20명 ■통신40명	·고등학교 및 수험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60명		
유아교육 (유아포교)과	2년	■통신50명 ■주간2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중국어과	2년	■주간30명 ■통신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통신40명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불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불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불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불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남경 중의약대학과 문화재경
95.11 불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3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6.2 불교학생 186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11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 유아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중국어과 1학년때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9월학기)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3월 28일 까지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은 당일 소인 유료)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과과: TEL. 02)511-2026 ~ 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과과에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WWW.Buddhapia.Com
☎ 035-0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교육부 학력 인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1.모집학과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주간·야간

2. 학교 소개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 2학년 6학기 졸업가능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3월 28일까지
- 문의처 ☎035-0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511-2026~8 FAX : 02)511-1080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중국어 최고 국립한외과 대학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모집학과

학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전문대, 대학 졸업자(재입학불가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건강 진단서 1통 ·보증서 1통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여권용 사진 2매
의예과	5년	

2. 학교 소개

- ▶ 중국 최고 국립 한외과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등 완비
-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798171 팩스: 25-6798168

※ 군대연기 가능 ※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